

글이 그림으로 말하고 그림이 글로 말하네...

29일까지 김성배 화백 선화전



글과 그림이 함께 어우러진 김성배 화백의 작품.

글이 그림으로 말하고 그림이 글로 말한다. 김성배 화백은 '말하는 그림'을 주제로 11월 14~29일 원주시립박물관에서 선화전을 연다. 이번 작품들은 김 화백이 2~3여 년 동안 준비해온 작품들로 묵화로 선화를 표현했다.

“조선시대 아동용 교재인 <추구(維句)>에 ‘꽃이 난간 앞에서 웃는데 소리는 들리지 않고 새가 수목 아래서 우는데 눈물은 보기 어렵구나’라는 말이 나옵니다. 선은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림도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글을 적어 보시는 분들에게 작품에 대한 이해를 높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김 화백은 불교경전과 중국, 조선시대의 고전들을 읽고 마음에 와 닿았던 글귀를 작품에 고스란히 담아냈다.

김 화백은 수십 년 동안 서양화만을 작업하다 1991년 우연한 기회로 수묵화 전시를 가진 뒤, 묵학으로 묵화를 꾸준히 작업해 왔다. 1977년 월정사에서 수계를 받았을 정도로 불교와는 남달리 인연이 많았던 김 화백의 그림은 그래서인지 더 선화(禪畵)적이다.

하지만 이번 전시는 순수한 우리 소리글자를 딴 '선화전'이다. 이에 대해 김 화백은 “선도(禪圖) 선(仙)이요 선도(善道) 선일 뿐이다. 또한 선도(線導) 선(緜)이고 선도(顯圖) 선(仙)이다”라며 “순수한 글인 소리글자를 써서 제작품이 한 뜻에만 고정되지 않고, 여러 뜻을 함축하고 있음을 말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전시회에는 그런 그의 선적인 마음이 담긴 작품 60여 점과 사를 80여 점의 전시품이 예정이다. (033)737-4371

이은정 기자

봉은사 옛시 전시회 8일까지

서울 봉은사주지 명진은 봉은사를 표현한 옛 선조들의 시를 모아 '옛 시로 만나는 봉은사'라는 주제로 11월 8일까지 시(詩) 전시회를 갖는다. 이번 고전 시 전시회는 <해동역사> <대동야승> 등 역사서에 기록돼 있는 봉은사를 소재로 한 옛 시 20편과 함께 일러스트 작품들이 전시된다.

봉은사는 이번 전시회 외에도 다례제, 정대불사, 템플라이프, 인경체현, 연꽃등 만들기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서울시민들과 불자들에게 다채로운 문화의 장을 선사한다.

아름다운 단풍으로 물든 봉은사의 가을 정취와 함께 옛 시를 감상하며 천년고찰 봉은사의 매력에 흠뻑 취해보자. (02)511-6070-4

이은정 기자

전통춤의 참맛과 향기, 맥을 느껴보세요

20년 맞은 '명인명무전' 70회공연, 신예와 원로 무대로 꾸며

민간예술기획사인 동국예술기획(대표 박동국)이 우리 전통 무용을 꾸준히 무대에 올려온 '한국의 명인명무전(名人名舞展)'이 20년을 맞았다. 공연 횟수는 70회다.

전통문화를 지키는 길은 언제나 험경고 고독했지만, 명인명무전은 매년 2회 이상의 공연을 펼치며 한 길을 걸어왔다. 신예에서 원로까지 전통무용과 소리꾼 가운데 이 무대를 거치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다. 무엇보다 명인명무전은 전통문화의 맥을 이어간다는 측면과 전통의 맥을 찾아내는 작업에도 심혈을 기울인 점에서 눈이 평가돼 왔다.

“양산학춤 ‘영산재’ 등 불교적 정서와 기원을 갖는 무용의 무대화를 주도한 것도 명인명무전의 주목할 성과다. 동국예술기획은 20주년을 맞은 올해에 모두 다섯 번의 공연을 무대에 올린다. 3월 28일에 목포에서 20주년 공연대장정의 첫발을 내디뎠고 4월 30일 익산 등 전국 5개 도시를 순회하며 공연을 펼쳤다. 그 대장정의 클라이맥스는 11월 7일과 8일 이틀 동안 서울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펼쳐지는 70번째 공연이다. 70회 공연은 ‘진향무(眞香舞) 혼의 맥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기획됐다. 첫날 펼쳐지는 무대의 주제는 ‘향무’다. 젊은 명인들의 무대로 전통의 향기를 미래로 이어간다는 측면을 강조한 것이다. 무대는 한애영(이매방류살풀이춤 이수자)의 기원무, 윤승미·안정금의 대구살풀이춤, 은희 서울예술대학 교수의 승무 등 아홉 가지 다양한 춤으로 장식된다.

둘째 날 ‘진무’의 마당은 원로들의 무대다. 올해 81세인 김문숙(대한민국예술원회원) 명인을 비롯한 안춘자·박연진 명인의 ‘가사호춤’ 최선(75) 명인의 ‘정인방류 살풀이춤’ 송준영(74) 명인의 ‘훈령대장무’ 등 아홉 가지 공연이 펼쳐진다. 집을 팔고 전세를 월세로 전하면 서도 20년 동안 명인명무전을 이끌어

올해 81세인 김문숙(대한민국예술원회원) 명인을 비롯한 안춘자·박연진 명인의 ‘가사호춤’ 최선(75) 명인의 ‘정인방류 살풀이춤’ 송준영(74) 명인의 ‘훈령대장무’ 등 아홉 가지 공연이 펼쳐진다.

집을 팔고 전세를 월세로 전하면 서도 20년 동안 명인명무전을 이끌어

올해 81세인 김문숙(대한민국예술원회원) 명인을 비롯한 안춘자·박연진 명인의 ‘가사호춤’ 최선(75) 명인의 ‘정인방류 살풀이춤’ 송준영(74) 명인의 ‘훈령대장무’ 등 아홉 가지 공연이 펼쳐진다.

집을 팔고 전세를 월세로 전하면 서도 20년 동안 명인명무전을 이끌어



이매방류살풀이 정명숙.

은 박동국 대표는 “전통문화가 있는 한 공연은 계속돼야 하고 동국예술기획이 있는 한 명인명무전도 중단되지 않을 것”이라며 “전통예술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 분류해 전통예술인들의 계보와 명부를 정리하는 것과 전통예술전문극장 설립이 꿈”이라고 밝혔다.

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

의도된 흔적 없이 자연 담아 빚어

민영기 도예가 찾사발전 22일까지 부산시립미술관서

“좋은 그릇을 만들기 위해 마음 비우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민영기 도예가의 찾사발 전시회가 부산시립미술관에서 11월 22일까지 열린다.

오로지 찾사발 작업에만 20여 년을 매달린 그의 작품은 조선의 사발모양을 기반으로 해 우리나라보다 일본에서 더욱 잘 알려져 있다. 조선에서 만든 그릇을 가지고 차 문화를 격상시킨 일본이기에 그의 작품은 당연히 일본의 관심 대상일 수밖에 없다.

한국의 차 문화가 조선시대에 본격적으로 성행했다는 설은 맞다. 그렇다고 해서 민영기의 찾사발이 단지 조선시대 찾사발 모양만을 고집하지는 않는다.

그의 작품은 인위적으로 모양을 내지도 않고 일부러 차고임 자리와 물때의 흔적 등을 남기려는 의도적 행위도 없다. 순수하게 의식되지 않는 자신만의 형태를 갖춘 자연의 형태를 지니고 있다.

부산시립미술관 임창섭 학예연구실장은 그의 작품을 두고 “노자의 말처럼 무위(無爲)처럼 보이나 무위가 아닌, 적극적인 인위(人爲)를 통해 무위의 아름다움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창조적인 장인 정신의 결과”라고 말했다.

민영기 도예가의 작품은 전통에 맞듯 하지만 결코 전통만을 고집하지 않는다. 그의 작품은 자칫 토속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오히려 현대에 더욱 적합한 작품이다.



부산시립미술관에 전시된 민영기 도예가의 찾사발 작품들.

이번 전시회에서 달이 흐르고 물이 흐르듯 자연에 가까운 그의 작품을 통해 자연의 정취와 찾그릇의 문화 고취를 느껴보자. (051)744-2602

이은정 기자

초심·정진·공명 마당 오세요

14일 봉인사서 한길예술제 열려

댄스, 창작공연, 퍼포먼스, 현대무용 등 다양한 장르로 펼쳐지는 남양주 봉인사의 한길예술제가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했다. 21세기를 이끌어갈 젊은 예술인들을 발굴해 육성시키고자 마련된 봉인사 제10회 한길예술제는 11월 14일 지난해까지 수상권에 들었던 팀들을 초청해 열린다.

이번 한길예술제는 ‘세상에 하나됨으로’라는 주제로 초심, 정진, 공명 마당으로 진행된다. 초심마당은 개막공연을 통해 한길예술제의 흥을 살리는 공연으로 꾸며진다. 정진마당은 과거 수상 팀들이 참가해 젊음의 끼와 열정을 발산하는 창작공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공명마당은 참가자와 관객 심사위원이 모두 심사에 참가하는 삼원 삼색 심사제를 열어 작품성과 예술성에 대해 평가하고 진선미를 선발한다.

봉인사 주지 적경 스님은 “한길예술제는 모든 자유와 표현을 허용하는 자리로서, 종교를 떠나 모든 예술문화를 공유하는 자리”라며 “예술적으로 성숙하고자 하는 젊은이들에게 자유와 열정을 표현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만든 이, 하는 이, 보는 이가 모두 즐거울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특히 댄스팀 리버스쿠르의 공연과 흥은재 예술단의 신명, 허유진과 풍명, 최진숙의 명창 공연 등 화려한 초정무대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어서 더욱 기대가 된다. (031)574-5585

이은정 기자

참나와의 친밀한 만남

몸 마음 영혼의 완전한 치유법!

- 전 통 활 락 법 : 최상의 에너지인 수증화(물 속의 불)로 전신에 경락을 일거에 타통한다.
- 체 절 조 절 법 : 모든 난치병의 뿌리는 뇌에 있다. 체절 조절로 뇌를 다스려 난치병 근치의 신기원을 이룬.
- 전신골격 조정법 : 손가락 하나를 가볍게 접촉하여 참나의 기운을 나눔으로써 5분 이내에 뒤뉘어진 골격을 바로 잡는다.
- 전생업장소법 : 뇌하수체에 흡수된 아뢰야식의 전생업장을 천연에너지로 강력하게 태운다.

자동 운기법! 자동 축기법!

수행의 최고 경지는 의념이 배제된 채 자절로 운기와 축기가 이루어져야 한다. 진인의 경지에 바로 진입한다.

운명의 공식! 깨운의 법칙!

우주생성의 근본원리로서 자타의 운명을 파악하고, 미래를 정확하게 예단하는 혜안이 열린다. 사업, 취업, 결혼, 부동산매매, 주식거래, 각종 시험 등등 인생 제만사의 각종 문제들을 미리 조정하는 능력자가 된다.

영혼의 과학에 의거한 참된 영가 천도법!

영가의 상태를 직접 파악하고 직접 천도하며 결과까지 직접 확인하는 초유의 비법을 누구나 증득할 수 있다.

최강의 양택 발복법!

9등급으로 양택을 정밀하게 판정하고 기운을 조정하여 최상급의 명당으로 만든다.

완전한 깨달음! 행복한 현실창조! 아름다운 진화!

수 천년 동안 어렵פות한 말로만 전해져서 기간가하던 전설이 누구나 실현할 수 있는 최상승법으로 현실화 됐다. (1:1 방식으로 완벽하게 전수하며 회비는 3백만원입니다.)

무 료 체험신청하세쇼

좁은 지면에 담지 못한 놀라운 효능!
02)511-5945/ 010-9336-26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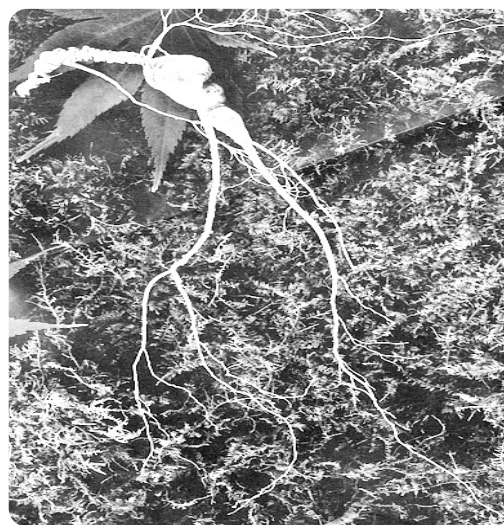
30년 전통의 산삼취급전문업체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自然

100% 순수 국내산! 국내산이 아닐경우 1억원 배상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식물은 本草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 120가지 下藥 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식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비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尊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의 佛功으로 善行하시는 스님 지지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옵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 100년, 120년 자연 산삼 5주(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문외상담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주문처 | 서울 (02)713-7798 / 010-5250-7798



심마당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검정필 (분석 51160-150)